



2013 세계연극의 날 다리오 포(Dario Fo)의 메시지

오래 전, 권력자들은 코메디아 델 아르데 배우들의 풍자적 예술행위에 대해 어떠한 아량도 베풀지 않은 채, 자국에서 추방했습니다.

오늘날의 배우들 그리고 극단들은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공공의 무대, 극장, 그리고 관객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우들을 위한 공간 혹은 메시지를 전달할 관객들의 부재로, 권력자들은 더 이상 아이러니와 풍자로서 예술적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의 권력자들은 코메디아 델 아르데 축제를 주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로, 많은 관객들이 이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메디아 델 아르데 배우들을 추방한 것은 반종교개혁 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법령에 의해, 모든 공연 장소와 공간들이 해체되거나 분할되었고, 특히 로마는 코메디아 배우들이 성스러운 도시를 욕보인다는 이유로 그들을 비난 했습니다. 1697년에 교황 이토켄티우스 15세는 보수적인 중산층과 대다수의 성직자들의 끊임없는 요청에 의해, 토르디노나 극장의 철거를 명하였습니다. 도덕주의자들에 따르면, 이 극장은 다수의 외설적인 작품들을 공연하였다고 합니다.

반종교개혁의 시대에 이탈리아 북부에서 활동하던 카를로 보로메오 추기경은 “밀라노의

아이들”을 구원하는데 전념했으며, 정신교육의 가장 높은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예술’, 그리고 신성모독과 허영심의 징후라고 할 수 있는 ‘연극’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카를로 보로메오 추기경은 편지를 통해 자신을 돕는 동지들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우리는 악의 싹을 없애는 일에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질스러운 연설이 담겨있는 책들을 불태워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림과 동시에, 어느 책에 그러한 것들이 담겨있는지 알려주는 자들 또한 처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분명 악마들은 또 다른 교활한 방법으로 일할 것입니다. 영혼을 해치는 책을 읽는 것 보다 그런 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더욱 해롭습니다!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은 책에 인쇄되어 있는 죽은 언어들보다, 적절한 몸짓, 그리고 발화되는 언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시에서 원하지 않는 영혼들을 없애는 것처럼, 연극 작업을 하는 자들을 없애는 것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연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에게 닥친, 특별히 연극예술을 공부하려는 젊은이들에게 닥친 추방에 저항하는 것에 있습니다. 방랑하는 코메디아 델 아르떼의 배우들, 연극을 창조하는 예술인들이 시도하는 새로운 표현으로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이 만들어진다는 희망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